

대한민국 특허 굴기(崛起)를 위하여

“2010 특허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 발명인들이 힘찬 새해 건배행사를 했다. 2010년은 21세기 첫 10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해이며 우리민족에게는 경술국치가 일어난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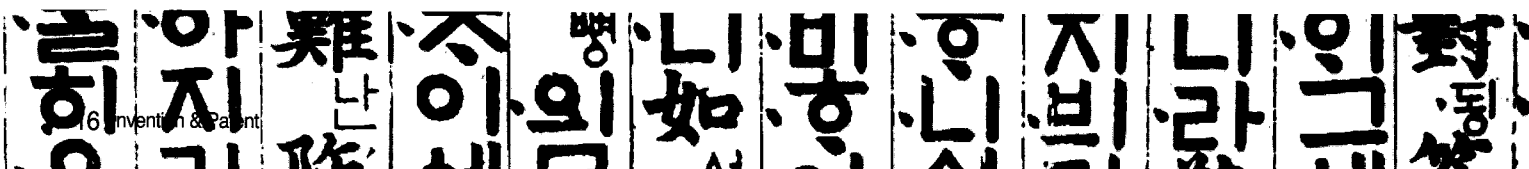
특허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허제도의 기원은 중세기 유럽 베네치아에서 있었는데 중세기 베네치아가 르네상스의 진원지라는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또한 특허법을 성문화하여 최초로 특허법을 만든 나라가 영국인데, 루이 14세의 프랑스의 독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법을 만들어 우수한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불문법 국가에서 성문화를 하였다. 이후 영국은 산업혁명의 대업을 세계사에 남기는 나라가 되었다. 독일 또한 주변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서 쇠락을 면치 못하다가 비스마르크 황제에 의해서 통일 독일을 만들고 주변 기술국가의 기술을 모방 개선한 아이디어에 권리를 주는 실용신안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오늘날의 기술국 독일 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허는 어떠한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특허제도가 잉태한 시기는 1908년 8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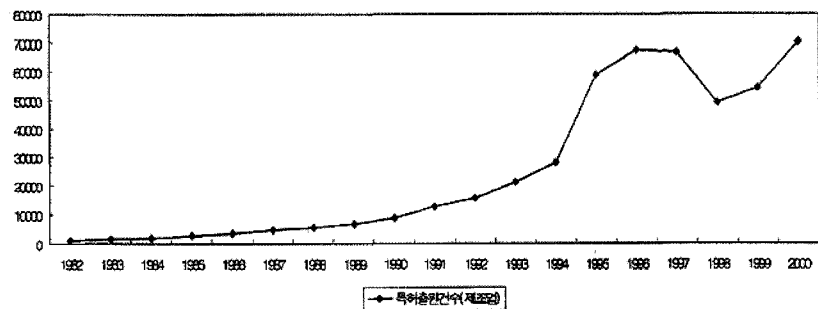
일 일본황제칙령에 의해서 “한국특허령”이 만들어졌다. 경술국치가 1910년에 있었기 때문에 1908년에 일본에 의해서 특허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국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무제도를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특허 제도는 5.16 혁명 후 같은 해 말 국가재건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져서 제정되었다. 이후 미미한 발전을 하고 있다가 1982년 1084건이 내국인에 의해서 국내에 출원되었고, 1985년 103건이 내국인이 미국 특허청에 미국특허를 취득한 것이 초창기의 우리나라의 실정이었다.

1987년 미국의 반도체 회사 TI(Texas Instruments)사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특허 공격하면서 한국에 특허 제도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이제 정설이 되어 있다. 상기 그래프 “내국인이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특허출원건의 변



내국인이 국내에 특허 출원한 특허출원건 변화



자료 : 특허정보원 데이터베이스

화”를 살펴보면 1982년에서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87년을 전후 약간의 증가속도를 보인 이후, 1995년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심도 있게 살펴 보고 진정한 특허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1987년 TI의 특허 공격이 있은 후 1988년부터 반도체에서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1990년 초 미국 일본 등 반도체 전문회사들의 특허공격이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특허료를 받겠다는 계산뿐 아니라 후발업체를 죽여야 살 수 있는 냉혹한 양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특허전쟁을 막기 위해서 특허팀이 정비되고 기술을 알고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술개발 연구원이 특허팀으로 흡수되는 시점이었다. 편안하게 연구원 생활을 하지 불모지나 다름없는 특허 전쟁터를 자원 입대하겠다는 연구원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연구원에서 특허팀으로 전배가 된 제1세대 특허 멤버 중 1번 타자가 필자이다.

특허가 영어로 patent 라는 단어도 생소한 상태에서 미국특허 수백 건을 검토하며 많은 외국회사들과 특허공격과 수비를 하였다. 어린 시절 장군이 되어서 멋있게 외적을 무찌르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 여기야 말로 꿈과 현실이 멋있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다.

전배 후 3년간 수 많은 회사들과 제1차 특허전쟁이 수습이 되고 향후의 전략을 모색하던 때 전쟁에서 강한 무기

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특허팀 내에서 특허 출원부서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경쟁회사들이 앞다퉈 출원을 하여 삼성이 선두에서 밀리고 있다는 신문 기사 데이터를 보고받고 상부에서 10년 이내에 미국 특허 5천 건을 등록시키며 1년에 5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라는 특명 “Make 5000”이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그런데 선봉대장을 아무도 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미션이라고 할 때 자의로 선봉 대장이 되었다.

그러한 미션이 실현되는 때가 1995년으로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5년 전까지 미미한 변화율에서 급격한 변화율을 볼 수 있다. 반도체에서 5천 건 성공 후 정보통신을 비롯한 전자회사들의 경쟁 촉발은 자동차 등 타업종으로 퍼져 급격한 증가 후 IMF 촉발 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 국가적으로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 되었고, 10년 후 Make 5000 이 달성되는 시점에 삼성전자가 세계 2위 특허 출원 기술회사로 변신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불모지나 다름없던 특허라는 황무지에서 국가적으로 세계 4위의 출원국가요, 세계에서 2위의 출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대단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허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기술 로열티보다는 주는 로열티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현실에서는 무언가 변신하지 않고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올 초 두건의 특허관련 뉴스가 신문 헤드라인을 크게 장식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 1조원대의 기술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램버스사에게 7억 달러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건의 기술료 협정 과정만 잘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만 잘 보완하면 특허 강국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어떠한 커다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인프라는 특허출원을 관점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특허출원을 위한 시스템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특허를 공격하고 소송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시스템이다. 특허를 관장하는 변리사가 특허권리의 보호 및 침해 소송에 있어서 특허 기술적인 특허법원 분쟁은 대리인을 할 수 있다. 특허재산을 침해했을 시 민사 형사상의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설이 다수설이 되어서 변리사는 민형사 소송의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특허 변호사는 모든 대리인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특허 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오고 우리나라의 변리사 시험과 같은 시험(Patent Bar)을 합격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의 변리사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 대부분이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웃 일본이나 유럽 모든 나라도 특허 변리사는 대학 졸업 후 관련 업계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전문가가 1차 시험 자격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로스쿨 제도가 생겨 판검사 임용도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 채용하는 미국식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현행의 변리사 시험 제도 또한 선진국 제도를 연구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분명 특허 변리사가 모든 특허사건의 대리인이 되어서 특허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 및 시스템이 되어야 특허의 질적인 발전과 공격적인 특허를 만들어 받는 로열티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답은 앞에서 언급한 ETRI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ETRI가 특허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SPH 아메리카라는 특허 공격회사가 대항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SPH 아메리카의 주인이 한국 사람이기 망정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에 좋은 일 할 뻔 했다. SPH 아메리카사의 대표 변호사는 한국 특허청 출신으로

미국의 로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진두지휘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루 빨리 특허 변리사는 전문분야이므로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로스쿨을 나온 이공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공격을 통한 로열티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램버스와 삼성전자와의 싸움은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램버스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보다는 특허괴물(patent troll) 회사이다. 이런 회사를 상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다. 앞으로 특허 대응에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특허대응하기 어려운 상대가 특허괴물(patent troll)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비밀비재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자기회사의 특허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방법밖에 없다. 독창적인 창의력을 발휘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술개발뿐이다.

올해가 경술국치를 당한 100주년이다. 21세기 국치는 타국의 지식재산으로 그 나라가 남의 나라 회사에 치욕적인 로열티 협정을 하는 것이다. 원천기술을 수출하여 국가의 위상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핵심적인 기술에서 로열티를 수천 억 준다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2010 특허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특허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21세기에 국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한국발명진흥회**



박진준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기업기술 가치평가(사)한
삼성전자 반도체 IP팀 수석연구원
특허법 및 창의력 개발 강사
KAIST EMDEC 신제품 개발 강사
창의력 이야기 외 다수 저술인